

중증장애인 운영 카페 ‘아피다방’ 개소

전북 고창군청사 1층에 문열어

매니저 1인 · 바리스타 4명 근무

중증장애인들이 운영하는 카페 ‘아피다방’이 전북 고창군청 1층 로비에 문을 열었다. 고창군은 19일 유기상 고창군수, 조규철 군의장, 정종만 장애인복지관장, 박현규 장애인후원회장, 이호근 장애인체육회장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아피다방’ 개소식을 개최했다.

‘아피’는 친한 친구라는 뜻으로 ‘아피다방’은 고창군민 모두가 친구로 하나 되는 공간을 의미한다.

앞서 군은 올해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

출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7000만원의 지원금으로 인테리어와 카페물품을 구입·설치했다. 지난 8월 장애인복지관(관장 정종만)으로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했다.

중증장애인을 채용해 운영하는 아피다방은 매니저 1인, 바리스타 4명이 근무하며 수익금은 인건비 외에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복지관련 사업에 사용하게 된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이번 카페 개소를 계기로 관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자립 기반 마련에 좋은 출발점이 되



리라 생각하며, 군청을 방문하는 모든 분에게 아늑하고 향기로운 쉼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라면서 “앞으로 고창군은 중증장애인의 역량개발을 적극 지원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은 이날 부대행사로 ‘나만의 컵 만들기’를 진행하여 1회용품 줄이기 운동에도 동참했다.

신안군, 장애인 인식개선 위한 전 직원 교육

신안군은 공직 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고 장애인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및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신안군 공역장에서 전 직원 및 시설·단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지난 15일 실시하였다.

이 날 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을 도모하고자 매년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전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강승원)를 강사로 초빙하여 인권관점

에 기반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 및 장애인의 대한 이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설명 등 공직자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였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들이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편견과 차별을 없애고 사회적 통합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관내 거주하는 장애인의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장애인이 살기 좋은 신안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케이블TV도 수어방송을 편리하게”

CJ헬로 ‘스마트 수어방송’ 시작... “미디어 기술 혁신 차별없이”

CJ헬로가 케이블TV 최초로 청각장애인의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 해소를 위한 ‘스마트 수어방송’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스마트 수어방송’은 사용자가 직접 TV 속 수어방송의 위치와 크기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서비스다. 수어방송 크기를 5단계로 구분해 최대 4배까지 키울 수 있고, 본방송과 분리해 TV 절반 가량 크기로 확대할 수도 있다.

스마트 수어방송은 헬로TV 시스템 설정 메뉴에서 스마트 수어방송을 ‘사용’으로 선택하고, 수어방송이 지원되는 프로그램으로 이동하면 자동으로 활성화된다. 이번 서비스는 가장 이용자가 많은 ‘헬로tv HD 셋톱박스’에 우선 적용됐다. 지원되는 셋톱박스는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 △KBS2 △SBS △MBC △YTN △JTBC △TV조선 등 6개 채널의 뉴스·드

라마·예능·교양 프로그램에서 스마트 수어방송을 지원 중이다.

CJ헬로는 “이번 스마트 수어방송 상용화는 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 TV 이어드림’(EARDREAM)이나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뷰잉’의 수어영상도서관 등 지난 2014년부터 사회적 차별 해소를 목표로 기술 개발을 지속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수진 CJ헬로 CSV경영팀장은 “CJ헬로가 디지털 디바이드 해소를 위해 노력해온 만큼, 선도적으로 스마트 수어방송 서비스를 개발했다”며 “미디어 기술 혁신의 혜택이 차별 없이 전해지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스스로 문제 개선 이끌 정책 원한다” 장애인 3만명 국회 운집

“공급자 주도 체제서 장애인은 돌봄대상 전략”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관계자들이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장애인 생존권 쟁취투쟁 결의대회’를 마친 뒤 국회 앞을 행진하고 있다.

지체장애인들이 장애인 당사자 주도의 입각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국회 앞에 집결했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장애인 생존권 쟁취 투쟁 결의

대회’를 개최했다. 주최 측은 이날 모인 인원이 3만여명 이상이라고 추산했다. 김성태·심재철·정미경 자유한국당 의원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들도 다수 참석했다.

장애인들은 “정부가 지난 7월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 맞춤형 정책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재 장애인들은 공급자 주도형 전달체계에서 돌봄의 대상으로 전락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 정책은 정치적 홍보용으로 사용될 뿐이었다. 장애인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위해 당사자가 직접 목소리를 내 문제를 개선할 수 있게끔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애인들은 그러면서 △장애인 복지예산 증액 △장애인 당사자 정치 참여 보장 △장애인기본법 제정 △개인예산제 즉각 도입 △장애인 고용보장 △장애인 복지단체 지원 활성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재정비 △여성장애인 지원 방안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등을 요구사항으로 내걸었다.

김광환 한국중앙지체장애인 협회장은 “장애인 복지가 척박한 시대로 되돌아가는 것에 분개한다”면서 “누더기가 된 장애인 정책을 어디서부터 손 대야 할지 모르겠다. 국민의 한 사람인 장애인에게 자기결정권을 부여해야 하며, 이를 위해 현 정책을 대폭 재정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062-960-6980
광산구 시암로 340번안길 5

Drawing 이호동

광산구